

나제즈다 엄: 조상님들의 모국을 방문하는 것 - 나의 소중한 꿈

후방부대의 여성근로자 나제즈다 세르게예브나 엄씨께서는 최근 90세 생신을 맞이 하셨다. 그녀의 친척과 지인들은 물론, 연해주 주지사인 블라디미르 미크루셴스키 그리고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또한 이 뜻 깊은 사실을 축하해주셨다.

국가수반은 자신의 축하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즉 “존경하는 나제즈다 세르게예브나 씨! 생신에 대한 진심 어린 축하를 받아주십시오. 귀하께서는 위대한 조국전쟁의 혹독함을 모두 경험하셨으며, 귀하의 헌신적인 노동으로 파괴된 도시와 농촌의 폐허로부터 국가를 일으켜 세우고 국가의 부를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언제나 강인함, 정신력, 올바른 일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웅 세대이자 승리자들의 세대이신 귀하의 세대가 남긴 공적 앞에 경탄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건강, 번영 그리고 모든 것에서의 최선을 바랍니다.”

나제즈다 세르게예브나의 유전적 뿌리는 그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북한의 한 농촌지역이다. 19세기 말 그곳에서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이 젊은 부부는 기아로 사망하지 않으려고 할아버지의 여섯 형제들과 함께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 갯벌을 따라 러시아 극동으로 이주했다. 연해주의 벽촌에 거주지를 택하고는 잣나무가 많은 것에 착안하여 잣나무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다른 사람들도 차차 이 마을에 정착했다. 이처럼 한 가정에서 하나의 마을이 형성되었다. 잣나무굴을 만드신 할아버지께서는 얼마 후 대표자로 선출되셨다. 마을 사람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어업과 산나물 채집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이곳에서 세르게이 엄과 마리아 채가 사랑하게 되어 결혼했으며, 1925년 4월에 딸 나제즈다를 출산했다. 해가 지나면서 어느새 아이를 입학시켜야 할 때가

되었지만, 시골에는 학교가 없었다. 이에 부모는 호랑이골로 이사를 가자는 결정을 내리고, 그곳에 새 집을 지었다. 아버지께서는 산림관리자로 근무하셨으며, 어머니께서는 가사를 돌보시며 아이들을 양육하셨다. 나제는 한국식 프로그램에 따라 4학년을 마쳤지만, 러시아에서 한국어 교육을 금지시키면서 나제는 소비에트 프로

그램에 따라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아래로 2학년 내려가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

나제즈다 엄씨의 증언을 들어보자. “내가 기억하는 한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돌아오면 우리 뜰에서 쉬지 않고 일했어요. 연해주 기후는 많은 것들을 재배할 수 있게 해주었죠. 우리 집엔 우리가 먹던 나물, 채소, 열매 그리고 과일이 항상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닭, 돼지, 소 등을 키우셨고요. 1937년 그러니까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한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 해 가을 중반 무렵 내부인민위원회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급습했죠. 한밤중에 집집

마다 들어가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길거리로 내몰았어요. 어떤 이들은 옷을 입고 무엇인가를 들고서 나

올 수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아무 것도 챙기지 못하고 집밖으로 내몰렸죠.”

마을에 살고 있던 한인들을 모두 기차역으로 내몰아서는 기차에 태우고 중앙아시아 이주지로 실어 날랐다. 나제즈다의 부친은 엔카베데 사람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 돼지고기를 잘라 이동 중의 식량을 마련했으며, 나머지 고기는 이웃에게 나눠주었다. 다른 많은 이들처럼 나제즈다 엄씨의 가족은 여러 해에 걸쳐 마련된 농장, 집, 지하 저장고에 남겨진 수확물 등을 남겨두고 빈손으로 나서야 했다.

박해 받은 이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지대로 옮겨져 초원지대에 버려졌다. 11월이어서 날씨가 추워졌다. 이들에게는 회계교육을 받으셨다. 타슈켄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단농장 ‘노바야 지즈니’가 있다는 사실을

이곳에서부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으로 흩어졌다. 나제즈다의 아버지께서는 운이 좋으셨는데, 산림분야의 전공

알고는 가족들이 희망을 걸고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실로 행운이 있었다. 세르게이 엄은 회계원으로 채용되었으며, 가족들에게는 준비된 집이 제공되었다. 엄마는 예전처럼 가정주부로 일했다. 나제즈다의 오빠는 동급생을 통해 카라간다에서 자신의 삼촌을 찾았으며, 삼촌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를 찾았다. 16살이 된 나제즈다는 전공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다양한 힘들 일들을 해내야만 했다. 그녀는 이곳에서도 우즈베크인들로부터 벼재배의 미묘한 차이를 배웠는데, 이것이 집단농장의 주요 활동 방향이었다.

다음 3 페이지



고려신문

한글판의 편집인: 김 발레리아
번역과 감수: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
구원 김종현, 윤상원
기자과 디자인: 김 이리나

청년들에게 바친다!

“인생은 놀라운 것이며, 하루하루가 어제와는 같지 않은 믿을 수 없는 여정이다.” 모든 사람이 비

하고 싶은 심지어 모든 이들이 다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로 인생을 채울 수 있다.

와 꿈꾸고 생각하려는 바람과 열망을 지혜 줄 필요가 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변화시

성하는 개별적인 청년들을 통합한다면, 그 다음에는 행복한 내일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

각을 가지고 3월 14일 고려인문화센터의 무대에 연해주 고려인 민족문화 자치회 산하 청년센터가 열렸다.

우 수 리 스 크, 블라디보 스토크, 나호 트카, 파르티 잔스크 지역 의 각 도시에 서 온 30명 이 넘는 16

세부터 35세 사이의 청년들이 개막식에서 첫 회의에 참석했다. 새로운 조직 의 회원들은 첫 만남

에서부터 센터의 목표와 과제를 설정했으며, 부처를 설립하고 각각의 임무를 규정했다. 청년센터의 장인 드리트리 송은 “센터의 활동은 사회, 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정신적·자도덕적 교육, 청년들의 능력과 재능 개발에 맞추어진 정책에 따라 조직될 것입니다. 이 센터는 민족, 직업, 거주지 그리고 개별적 특성에 관계 없이 전적으로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인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자신을 구현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우리 조직의 팀원이 되고자 하는 젊은

이들을 초대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우리는 충분히 오랫동안 일터와 집 또는 학교와 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배회하면서,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능성은 존재하며 세계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거대해서 아직도 우리를 놀라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실행하시고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창조하세요! 용기 있게 자신의 첫 걸음을 내디딘 사람들은 두 눈이 타오르고 정신이 기뻐하며 매번 새로운 계획이 실현되면서 당신의 활동으로 고무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타티야나 강



슷한 운명을 자랑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인생을 정말 흥미롭게 만들 수는 있으며, 오랫동안 이야기

사람에게는 삶의 열망, 행동에 자유와 현실화의 가능성을 주고서 창조와 개발 그리고 발명하기

키는 데 자신의 힘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창의적이고 질적으로 뭔가 더 나은 것으로 세상을 구

세부터 35세 사이의 청년들이 개막식에서 첫 회의에 참석했다. 새로운 조직 의 회원들은 첫 만남

2015년 러시아 대학생 태권도 챔피언

크스토보시(니제 고로드스카야주) 국제올림픽스포츠아카데미에서는 4월 4-5일 러시아 대학생 경연대회가 열렸다. 러시아대학생스포츠연맹에서 개최한 대회는 올해 기록적인 참가자 수를 기록하였다 - 50여개 대학에서 350여 명이 참가. 그 이유는 이번 대회의 결과에 따라 전세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할 대학생국가대표단이 구성되기 때문이었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국제대학생스포츠연맹이 주최하는 전

세계 대학생들 사이의 스포츠 경연의 장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연대회 중 하나로, 의미상으로는 중요성으로나 올림픽 다음가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올림픽의 예를 따라 2년에 1번씩 개최되는데, 올해는 대한민국 광주에서 7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릴 것이다.

이 경연대회에 참가한 극동연방대학교 대표단 중에 우수 리스크시에서 온 선수 김 빅토리아가 있다. 그녀는 수비, 공



격, 자세바꿈 등의 다양한 기술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폼세’ 분야에 참가했다. 경연에서 선수들은 순

서대로 2개의 폼세를 시연하고 그 후 점수를 받았다. 점수는 단지 동작의 정확성만으로 주어지지 않는

는다. 그보다는 템포, 리듬, 동작의 속도, 공격시 다리의 높이 그리고 강력함 등으로 구성된 시연의 전체적인 인상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연에서 김 빅토리아는 높은 수준의 태권도 폼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불공평한 심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쟁상대들을 앞질렀다. 그녀는 1등을 차지했고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한가지 언급해야 할 일은 이것이 우수 리스크시의 대학생 경기에서 다만 태권

도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운동경기에서도 새로운 수준의 발전을 이룩한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김 빅토리아는 우리 도시에서 그러한 수준의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최초의 운동선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대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신 우수 리스크시태권도연맹과 아나톨리에비치 그리고 유가이 알렉세이 에두아르도비치에게 감사드린다.

‘고려신문’
홍보과

우수리스크 노인단의 설날

나제즈다 엄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여름에는 밭기 힘든 더위가 이어졌어요, 모래의 온도는 그 위에서 달걀을 삶을 정도의 온도까지 올라갔죠. 그런 폭염 속에서 일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죠. 사람들은 이른 아침과 저녁에 벌판으로 나가 일했어요. 대마와 같은 씨앗인 전구를 재배했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논농사일에 우리 힘을 다 바쳤죠. 국가는 ‘모든 것은 전선을 위하여’, ‘모든 것은 승리를 위해’라는 구호를 내걸고 쌀의 추가 1/10톤을 요구했고, 우리는 어른들과 똑같이 3월부터 8월 말까지 해가 떠 있는 내내 논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9-10시간을 무릎 꿇고 땀, 연충류, 거머리가 우글대는 흙탕물 속에 있었다는 말이죠. 이 더러운 곳에서 점심 먹으러 나와서, 방수면포로 된 장화를 벗으면,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머리를 털어내야 했어요. 다시 논으로 들어가는 게 끔찍하고 역겨웠죠. 하지만 원하는지 않는지를 물어보지 않았고, 작업반장은 모든 이들이 1일 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가을이 오면 논에서 물을 빼는데, 벼 줄기가 마르면 현미(도정하지 않은 쌀)를 수확하고 기계로 껍질을 벗기고 체질을 했어요. 좋은 알곡은 국가가 가져갔고 작은 알곡과 찌라기를 근로 일수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지불했죠.”

낮에는 쌀 생산자들이 집단농장의 단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는데, 대체로 말고기와 함께 시와 카샤를 제공했다. 냉장고는 없었으며, 심한 더위 속에 고기가 장기 보존되지 않고 상해 버렸다. 그런 재료로부터 어떤 요리

가 나올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힘든 육체노동을 완수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런 음식마저도 억지로 먹어야만 했다. 저녁에는 명아주나 등대풀을 넣어 만든 킨약처럼 씹쓸한 맛의 옥수수죽을 집에서 끓여서 먹었다. 특히 젊은 이들은 눈만 뜨면 뭔가를 먹고 싶어 했다. 간혹 찌라기를 옥수수기울과 섞기도 했다. 굶주림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약해졌으며, 몸이 부었음에도 그들에게 작업을 면제시켜주지 않았다. 면화를 따는 동안 모든 손가락이 찢어져서 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나제즈다는 며칠 내내 논에 있는 것보다 면화를 수확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하루의 작업량을 완수하려면 면화 50킬로그램을 수확해야 했다.

나제즈다 엄은 매일 같이 후방에서 3년 동안 규정된 시간을 일했다. 전쟁이 끝나자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1947년 22살의 처녀인 나제즈다는 자신의 연인인 블라디미르 김을 만났다. 그는 나제즈다보다 7살이 많은 사범 교육을 받은 심성이 고운 공산당원이었다. 결혼을 했지만, 두 부부는 한국식 전통에 따라 각자의 성을 유지했다. 블라디미르가 중앙아시아의 무더운 기후를 무척 힘들어 하자, 의사는 거주지를 바꾸라고 충고해 주었다. 연해주로 이사를 가자는 부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랜 시간동안 이사를 미루었다. 그러다가 자기 몸 상태가 더욱 안 좋아져서야 이사를 결

정했다. 1957년 엄씨의 가족은 파르티잔스키 지역의 세르게예프카에 정착했다. 사샤, 조야 그리고 클라바 등의 자녀는 학교에 다녔다. 아버지는 러시아어와 문학을 가르쳤으며, 엄마는 양재점에서 재봉사로 일했다. 여기서 그들의 유랑생활이 끝난 것으로 보였다. 칼도 쓰지 않으면 녹슨다는 격언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을 인용해야 할 때이다. 부모들의 지칠 줄 모르는 가슴은 ‘문명’에 더 가까이 닿아 있었다. 5년이



지난 후 엄씨의 가족은 잘 갖춰진 장소를 뒤로하고 나호트카로 이사했다. 1967년 남편은 시집행위위원회의 인민교육과를 통해 공익시설을 사용하는 주택을 제공받았다. 그들이 기뻐했을 것 같지만, 이제 그들은 땅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 152킬로미터 거리의 원예학회에 다차 구역을 구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배했다. 블라디미르 안토노비치 씨는 처음에는 기숙학교의 경리부장으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몰로조즈노이 거리에 있는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했으며, 메달과 함께 ‘노동 베테랑’이라는 칭호를 수여받고 그 직책에서 퇴직했

다. 이후 몇 년을 더 살다 1993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나제즈다 세르게예브나는 퇴직할 때까지 오랜 시간동안 포그라니츠노이 그리고 나중에는 레르몬토프 거리에 있는 양재점에서 개별 예약을 받아 일했으나, 나중에 그녀를 생선 라인으로 전임시켰다. 매년 그녀는 사회적 책임량을 초과달성하여, 생산의 선구자가 되었다. 성실하고 유익한 노동을 기려 ‘공산주의 노동의 돌격작업반원’이라는 표시로서 포

상을 받았으며, ‘레닌 탄생 100주년’ 기념메달, 다수의 명예증서와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그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의 모범이 되었으며, 그녀의 노동성과는 포상금으로 경하되었다. 나제즈다 엄은 후방 노동의 대가로 대승리 50주년, 60주년 65주년 기념메달을 수여받았다. 최근 이런 훈장에 “1941-1945년 대조국전쟁 승전 70주년” 기념 메달이 하나 더해졌다.

나제즈다 엄의 딸 클라브디야는 오랫동안 나호트카 선박수리공장에서 회장으로 근무했다. 정년퇴임한 이후 그녀는 가족과 함께 줄로타야 돌리나로 거주

지를 옮겼다. 다른 딸 조야는 극동어업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나호트카에 있는 기업 중 한 곳에서 견적원으로 일했다. 그런데 월급을 타서 집에 오는 날 흥악범이 그녀 뒤를 따라와 그녀를 강탈하고는 살해했다. 아들 알렉산드르는 극동어업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선박의 정비공으로 바다에서 장기간 근무했다. 현재는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다. 이 자녀들은 양친에게 손자 1명, 손녀 3명 그리고 증손자 2명을 선물했다. 손녀 레나는 의과대학 3

학년 재학 중이다. 손자 세료자는 해양교육을 받았으며,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바다로 출항한다.

“세료자는 내 지주이자 희망이랍니다.” 나제즈다 엄은 웃음을 지었다. “이미 오랫동안 그가 나를 보살피주고 있어요. 얼마 전엔 우리 집을 잘 수리도 해주고,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알고 있으라고 와이드스크린의 플라즈마 티비도 선물해 주었어요. 최근에는 저 혼자 살고 있죠. 제 친척인 알라 니콜라예브나는 매우 자주 저를 방문합니다. 대체로 제가 직접 우리 민족 전통 음식 중에서 무엇인가를 요리해주죠. 전반적으로 저는 음식에 까다롭지 않아서, 먹는 것으로 만족하죠. 전쟁 당시 굶주리던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 상점에는 그저 풍요로움 따름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물에 빵 한 조각 만으로도 즐거울 거지만, 단지 지난 세기의 40년대에 우리 세대에게 닦쳐왔던 그런 공포스러운 동란의 시대가 반복되지 않아야겠죠. 이전 여름에 딸이 절 줄로타야 돌리나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얼마간 살았어요. 의자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난 기꺼이 이랑을 밟을 겁니다. 우리 한인들은 쟁기의 인민이고, 땅은 우리의 고유 요소입니다. 만약 땅을 사랑한다면 그 땅은 기아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2년 전 나제즈다 세르게예브나는 숲에서 고사리를 채집하다가 넘어져서 허벅지를 다쳤는데, 그때부터 목발을 짚어야만 다닐 수 있다.

우리의 말동무께서는 너무나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셨다. “제 마음 속에는 하나의 꿈이 있는데, 아마도, 이미 실현 불가능한 것이겠죠. 제가 일하면서 돈이 있을 때는 제 모국으로서 제 선조들이 살았던 북한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가능합니다만 다른 많은 이유들이 생기네요. 그래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뿌리가 있는 모든 곳을 돌아다녀보고 싶어요. 전 이제까지 모국어를 잊지 않고 있으며, 그 모국어가 북한 함경도말에 더 가깝죠. 현재 남한과 북한은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지만 난 두 방언 모두 이해하고 있어요. 내 꿈이 언젠가는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판튜호프

새로운 이민법으로 연해주 내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웃 나라로부터 부터 무비자로 연 는 이웃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의무 해주를 방문하는 온 외국인이 직업
적으로 직업에 대 독립국가연합의 시 허가서를 받는 절
한 허가를 받도록 민은 법인이나 개 차가 어떠한지 애
만든 새로운 법으 인기업의 허가서 기해 주었다.

방 법규에 대한 지
식수준 테스트 등
을 통과해야 하고,
일련의 문서들 역
시 제출해야 한다.

시민들이 주택공
영기업에서도 도로
건설에서도 그리고
서비스업 분야에서
도 일하기를 원하
게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라는 사실
을 강조했다.

연해주에서의 직업 허가서를 받은 외국인들은 오직 연해주에서만 노동에 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 외에도 허가서를 발급받은 이후 2개월 내에 러시아 이민국의 지역 관리국에 근로계약서 또는 시민권리 합의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고용주는 2주 이내에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 또는 외국인과의 근로계약 중지에 관한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해야 한다.

외국인의 이민법 위반에 대해서도 역시 엄격한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릴리야 콘차루크는 “만약 외국인이 임시 체류 기간인 180일이 만료된 이후에도 러시아연방의 영토를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 270일 이하이면 5년 동안 러시아로의 재입국이 금지되며, 270일이 넘을 경우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연해주 주지사 블라디미르 미글루셰프스키의 의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할 때는 그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는 투자 유치를 지지하만, 그 투자금은 우선적으로 연해주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해주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해야 합니다.”라는 게 주지사의 생각이다.

연해주 행정부
프레스-서비스,
예카테리나 베카

그녀는
“러시아에
도착한 시
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외
국인은 허
가서 획득
에 대한 신
청서를 이
민국에 반
드시 제출

로 연해주 내 이민	를 소지해야만 일	해야 합니다. 1년
자의 수가 줄어들	할 수 있다. 예전에	기간 허가서의 가
수 있다고 한다. 연	는 인근이나 먼 곳	격은 37,000루블
해주 법률유지활동	에서 온 시민들은	이 넘습니다.”는 사
조정국 국장 릴리	해당 기업이 쿼터	실을 통보해 주었
야 곤차루크는 기	를 받은 경우에 한	다.
사회권 중에 이런	해서 법인에서 일	그 외에도 외국
견해를 나타냈다.	할 수 있었다.	인은 신체검사, 러
2015년 1월 1일	릴리야 곤차루크	시아어와 러시아어

올 여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유라시아 친선폭급”이 달린다

6월, 250명의 대
한민국 대표단이
참가하는 “유라시
아 친선특급”이 블
라디보스토크를 출
발한다. 기업가들
과 정부 관리들이
기차를 타고 전 러
시아를 관통해 모
스크바까지 간다는
이 계획은 연해주
의 수도인 블라디
보스토크 시정부와
의 회담에서 이석
배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대한민국총영
사가 밝힌 것이다.
한국의 대표단은

서 개최되는 이 행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실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몇 가지 큰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현대>호텔에서는 대규모의 비즈니스-포럼이 개최될 계획이고, 필하모니에서는 큰 문화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한국의 언론을 위한 기자회견이 개최될 것이다. 이 기자회견에는 서울, 부산, 인천에서 온 가장 권위 있는 언론사들의 대표 약 30명이 참가



할 예정이다.

회담 참가자들은 한국 대표단의 당면한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유익한 협력을 가져올 장래 발전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었다. 그 안에는 자매도시 체결에 관한 내용까지 들어 있었다.

회담은 블라디보스토크 부시장 알렉산드르 유로프가 주재하였다. 대한민국 총영사 외에 회담에는 시정부 국제협력 및 관광국 국장 알렉세

이 쿠쉬니르와 국제협력 및 관광국 국제의전과장 비탈리 예레멘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 이지훈 영사가 참석했다.

연해주 행정부
프레스-서비스,
예카테리나 베카